



장단콩 삼백

‘장단콩으로 6차산업 육성’ 장단콩 생산부터 체험까지, ‘파주 웰빙마루’ 내년 7월 준공

경기 파주시는 최고 품질의 장단콩으로 생산·가공·유통·판매뿐 아니라 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장단콩웰빙마루 조성 공사를 올해 4월 착공한다고 밝혔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2015년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에 당선돼 도비 100억원을 사업비로 확보하면서 추진됐다. 탄현면 성동리 678번지 일원에 내년 7월 준공 목표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전체 면적 4만8천94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생산·가공·유통, 판매·관리·동, 전시·외식·동, 체험·동, 문화·동 5개 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축공사는 토목·기계·조경 공사로 이뤄지며 입찰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단콩웰빙마루 조감도

이 사업은 2017년 5월 착공됐으나 수리부영이 서식지 보호 대책 미흡을 이유로 중단됐었다. 그러나 최종환 시장 취임 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2018년 10월 탄현면 성동리 일원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재개됐다. 최 시장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장단콩을 주제로 한 콩 수요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6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개성인삼축제, 올해 ‘경기관광특성화축제’로 뽑혀

경기 파주시는 지역 대표 축제 ‘파주개성인삼축제’가 2020 경기 관광 특성화 축제에 뽑혔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파주장단콩축제가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기관광 특성화 축제는 도내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올해에는 서류심사를 거쳐 20개 축제가 최종 심사에 올랐으며, 5개 부문 15개 축제가 선정됐다. 파주개성인삼축제는 지역특산물 분야 1순위 축제로 뽑혀 경기도 지원금 4천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취소됐던 파주개성인삼축제는 오는 10월 17~18일 임진각광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현철 파주시 농업진흥과장은 “지역 대표축제인 파주개성인삼축제의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방문객이 만족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파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장단삼백

파주장단콩 · 파주개성인삼 · 한수위파주쌀